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7월 10일(금)
...(음력 5월 20일)..
Пятница
10 июля 2020г.
№ 27 (11689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7월 8일 러시아의 가족, 사랑과 신뢰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 민속창작센터 강당실에서 11 부부에게 <사랑과 신뢰에 대한> 메달 수여가 진행되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이 메달을 수여하는 분 중에는 금혼기(50주년)를 맞이한 김영환·김영자 부부도 있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주에서 이 명절은 오래전부터 진정한 서민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 지역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할린 주민과 쿠릴 주민에게 있어 어로는 전문적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로서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사할린에는 생선과 해산물의 맛을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전통적으로 이날에는 섬 특유의 생선스프를 준비합니다.

사할린의 수산업 단지는 다년간에 걸쳐 극동지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산자원 어획, 생선 통조림 생산, 연어 양식과 연안 가공산업의 잠재력이라는 3부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생선과 해산물은 사할린의 경계를 넘어 먼 곳까지 알려져 있으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할린주 정부의 국가 지원으로 생선의 원거리 가공산업이 새로이 설립되고, 선박 확장과 생산시설의 현대화, 연어 양식장 건설에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낚시 애호가들의 발전을 위한 여건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는 어민들이 어획한 물고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에서 시험적인 기획에 동참했습니다.

바다의 선물은 우리 섬의 보물입니다. 이런 잠재력을 합리적이고도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만 아니라 사할린과 쿠릴의 다음 세대들도 생선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고향 사람의 진미와 맛을 제공하며, 낚시로 시간을 즐기면서 여기에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어획과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주지사 웨.리마렌코

사할린, 사할린국립대 졸업생을 위한 복수 전공 졸업증서에 대한 협정 체결

지난 8일 주 정부와 사할린국립대, 사할린 지역개발공사가 함께 복수 학위 취득 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장학생으로 사할린국립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러시아 우수 대학의 유망한 전공 분야를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을 위해 사할린을 떠날 필요가 없으며 복수 전공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장기 협력에 대한 문서에는 사할린주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마리아 간첸코와 사할린 국립대 총장 대행, 안드레이 메드베제브 사할린 지역개발공사의 사장이 서명했다.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올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학생으로 뽑힌 학교 졸업생 343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생들을 위한 23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가운데 교육이 끝나면 사할린 국립대의 졸업증서와 협력 대학의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총 14개 대학이 협력하고 있으며 '완벽하고도 현대적이며 복합적인 교육체계'로 러시아의 우수 교수들이 교육을 하기로 사할린의 대학생들에게 약속했다. 사할린 국립대 총장의 말에 따르면 교육은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그램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용하도록 다방면으로 모든 것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마리아 간첸코와 총장 대행이 밝혔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수상으로 임명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은퇴의사를 밝힌 주 정부 세르게이 나우모브 부수상의 사임을 수락하고 그가 성과를 거둔 협력 사업과 긍정적인 결과에 감사를 표명했다. 부수상직에는 7월8일부터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을 한 블라디미르 유슈크가 임명됐다.

그는 부수상직에 재직 중 주민들의 문제들(교육, 보건, 사회 복지, 주민 고용과 노동, 스포츠, 문화 등)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전방위적으로 감독해왔다.

사할린 보건부 장관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사할린주정부에서 전했다.

사할린 주지사, 연방반독점원 사할린 관리국 지도자와 만나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연방반독점원 사할린주 관리국 막심 실리초브 지도자와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국책사업 수행 중 독점금지법 준수와 경쟁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방향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연방반독점원 사할린주 지도자에 따르면, 독점금지법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국가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점금지법 및 조달법 준수를 위해 지역의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사할린, 코로나19 사태 점점 심각해져

최근에 사할린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주 초부터 사할린주에는 하루에 거의 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7월 8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69명이 감염된 가운데, 감염 확진자 중 37명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 32명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다. 지난 7일(화)에는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 환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외에 확진된 이민자들과 접촉한 사람 12명이 있다는 정보도 나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생률의 역학관계는 종종 마스크·장갑 착용, 사회적 거리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무시한 주민들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은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월 8일 현재 사할린주에서 코로나 확진 사실 총 1163건, 595명이 회복되어 퇴원했으며 56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할린주에서의 100일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료는 3면에 게재.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코르사코브 한인회 부회장 박창순 씨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어 한인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하다

코르사코브에서 거주하는 박창순(71) 씨는 사할린 한인 사회계에서 21년째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 그녀는 코르사코브 한인회 부회장 겸 이산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 한인 사회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현재 찾기가 어렵다.

항상 한인회 회장의 오른팔이었고 단체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장직 제의도 여러 번 받았지만 그녀는 항상 거절해왔다.

"2000년부터 코르사코브 한인회 부회장으로 지내면서 그동안 한인회 회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금 한인회 회장을 맡은 이태출(이태준) 회장님이 6번째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이 바뀔 때 사실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만 갈갈이 '안 하겠다고' 거절했었어요.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웅변을 잘 해야 하고 리더십이 강해야 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박창순 씨는 설명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일에서 만큼은 철저하여 자신의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그녀는 돌린스크구역 브즈모리에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하게 되어 제8조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5학년을 마치자 조선학교가 폐교되고 러시아 일반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노동의 길로 섰다. 첫 일자리는 사할린 중앙인쇄소였다. 그녀는 제본사로 인쇄물을 접착제, 실 등으로 묶고 표지를 달아 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1977년에는 코르사코브 남성과 결혼하여 코르사코브에서 살게 되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직업과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 사실 어릴 적부터 가족, 친지와 친구들이 그녀를 '말순'이라고 불렀다. '말순'이란 이름은 부모님이 불러준 이름이었다.

"제가 셋째 딸이다 보니 부모님이 말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름이 잘 맞았나 봅니다. 제 뒤 바로 남동생이 태어났거든요."라며 박창순씨가 웃으며 얘기했다.

그녀의 부친이 1940년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오자 이후 모친이 부친을 따라 찾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대가족(형제 2남 4녀)의 셋째였고 화목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박창순 씨는 코르사코브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활약하게 되었다. 두 아이의 엄마(딸과 아들)로서, 아내로서, 사회인으로서 살기가 무척 바빴다.

어느 날 눈이 몹시 나빠져 재봉을 못하게 되면서 일직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사할린에서 여성은 50세부터 연금을 받았음.) 그리고 코르사코브 지역 동포들의 생활에 대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사할린에는 동포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은 별로 없다. 대다수가 사할린 중심지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를 오거나, 한국에 영주 귀국하거나,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이주했다.

코르사코브는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던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한인 수가 유독 많았다. 물론 이곳도 영주귀국자가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에 비해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 남아 살



을 이어갔다. 현재 코르사코브에는 약 30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 한인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 중 한 분이 박창순 씨다.

그녀는 영주귀국, 일시모국 방문 등 관련 이산가족사업을 담당하면서 코르사코브 1세분들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20년간 이 일들을 담당하다 보니 현재 어르신들의 전화번호도 외우고 있고, 관련 정보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다. 코르사코브의 한인 할머니들은 심심하면 한인회로 불러달라는 부탁까지 한다고 한다. 이때 박창순 씨가 주관하여 다과를 마련하고 차를 마시러 어르신들을 한인회 사무실로 모시곤 한다고 했다. 보통 12명-18명이 할머니들이 찾아오는데 현재 코르사코브의 1세 어르신들은 21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킨(KIN)단체가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전할 때, 그리고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에서 새해 선물을 전할 때 이들을 방문하고 있다. 그 외에도 코르사코

브 한인회가 1세분들을 위해 크게 기념하는 음력설 행사, 3·8절, 어버이날, 광복절 행사 등에 꼭 초대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할 때 코르사코브의 한인 여성들은 자주 직접 요리를 장만한다. 이때도 박창순 씨가 부회장으로서 앞장서 책임을 담당한다.

2016년부터 박창순 씨는 코르사코브 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 한국어 교육은 코르사코브의 두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인 외에도 러시아 학생들, 알타이에서 온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중고등 학생 외에도 40-50대 성인들이 주말마다 한국어 수업을 찾고 있다. 수강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을 초대해 함께 수업을 하기도 한다.

작년 11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 박창순 씨는 한국 춤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했다. 조선학교 다닐 때부터 한민족 무용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방과 후 시간을 투자해 춤을 배워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독무를 추었다고 했다. 박창순 씨가 무용을 잘하는 걸 보아온 중년 한인 여성들은 계속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해왔지만 나이 탓으로 박 부회장은 거절해왔다. 그러다 작년 10월에 코르사코브에서〈한 가정에서〉축제(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 코르사코브 시행정부, 코르사코브 한인회) 일환으로 진행된 공연에서 박창순 씨가 멋지게 〈노들강변〉춤을 춘 후로 한인 여성들의 부탁이 더욱 강경해져서 이제는 춤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박창순 씨는 춤동작을 가르치면서 무용 연출까지 하고 있다. 11월에 첫 연습을 시작한 무용단은 이

미 음력설 행사에 〈아리랑〉춤으로 데뷔를 했다.

"그땐 〈아리랑〉을 부채 없이 추었어요. 그 후 부채를 갖고 춤을 열심히 배웠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행사도 못하고, 연습도 계속 못했습니다."라며 박창순 부회장은 아쉬워 하며 "한국어 수업도 같은 상황인지라 코로나19사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하는 바람을 말했다.

박창순 씨에게는 한인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다. 사회사업이 재미있다면 누구나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자체가 기쁘고 사람들과 접촉하여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곳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활동한다는 게 삶의 기쁨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항상 곁에서 자신을 챙겨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마음놓고 이렇게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43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이명복 씨는 아내를 많이 아낀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지지하고, 한인회의 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우며 아내의 운전 기사도 해주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이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로에 대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박창순 씨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엄마이자, 두 손녀의 할머니이기도 하다. 이 가족은 무엇보다 소풍과 겨울 낚시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박창순 씨는 특히 여름철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동생들(언니들 영주귀국)의 가족과 코르사코브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기는 것이 여름을 보내는 즐거움이라고 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연방 항공청, 국제선 운항 금지 8월 1일까지 연장

러시아 연방 항공청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과 관련하여 국제선 운항 통제를 연장한 가운데 출입국 금지 조치가 31일까지 발효된다고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턴트> 소식통이 전했다. 연방 항공청은 러시아 항공사들에 이런 지침을 전달했다. 이전에는 해외 왕복 항공편은 이르면 7월15일부터 일부 재개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다

'2020년 7월31일 모스크바 시간 기준 23시59분까지 외국인과 러시아 비시민권자는 러시아로의 입국이 임시 통제된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연방 항공청은 국제 항공노선이 중단된 이후 매달 러시아 입국과 출국에 대한 통제에 대한 지침을 전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항공청의 항공편 운항 재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해 국내 모든 공항들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월 27일부터 항공기 국외 정기 및 전세기 운항을 중단했다.

Росавиация продлила запре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леты до 1 августа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и продлило действующее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леты, связанное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и выезд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по 31 июля включительно. Подробности передает издание РБК.

Росавиация уже направила аэропортам стр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телеграмму. Ранее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что полеты за границу и обратно могут частично возобновить с 15 июля.

«До 23:59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31.07.2020 действует времен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въезд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Такие сообщ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е ведомство выпускает каждый месяц после останов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Речь идет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как на въезд в Россию, так и на выезд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После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б открытии полетов Росавиац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уведомит об этом все аэропорты страны.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Россия прекратила регулярные и чартерные полеты за рубеж и обратно с 27 марта.

사할린,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 확인 가능

을 7월부터 러시아는 의무적으로 의약품 상품 표기를 하고 있다. 약품 포장에 특별 표기는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시켜준다. 이전에는 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 시 처방되던 고가의

약품에만 상품 표기를 했었다. 무엇보다 상표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 좋은 품질 제공한다. 이는 위조 약품이 합법적 의약품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규정의 요건에 부적합한 약품을 찾아내어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대책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납품업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품 표기는 공급자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전개시킬 거라 전망하는 가운데 국가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구매한 의약품의 이동은 엄격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상품 표기는 치명적 중요한 약품들의 소매가 임계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게 한다.

러시아인이거나 누구나 <치스티 즈낙(정직한 표기)>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의약품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고 불법성을 적발 시 소송할 수 있다. 포장지에 코드를 찍으면 약품명과 제조사, 유통기한, 코드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качество лекарств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С ию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оссии сделали обязательной маркировку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Специальная метка на упаковке с препаратом подтвердит его легальн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Ранее такие наносили лишь на дорогие по стоимости лекарства, которые назначали пр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серьезных заболеваниях.

(8면에 계속)

전 러시아 인구조사 2021년 4월로 연기

러시아 연방 정부의 명령으로 전 러시아 인구 조사 날짜가 2021년 4월로 결정되었다.

도시 및 벽지 지역의 인구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인구조사 시행령 변경에 따라 2021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 러시아 인구조사가 실시된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주민들의 등록을 실시하는 시기는 2021년 4월1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시행안에 적시돼 있다. 다가올 전 러시아 인구조사 예비 결과는 2021년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최종 인구조사의 결과가 산출되면 2022년 1/4분기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엄격한 일관성 속에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인구조사로 지난해와 대비 평가하고 , 현 상황을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설계한다. 유엔은 적어도 10년에 1회 전국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 러시아 인구조사에 대하여'라는 연방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시기적으로 인구조사 과

정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해결책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가올 전국 인구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이 테블릿을 이용하거나, 희망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구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은 전국의 주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할 거라 전망한다. 앞서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 러시아 총인구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의 상황과 관련하여 러시아 통계청은 인구조사를 2021년으로 연기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2021년 4월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인구조사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새로운 조사 방식의 도입으로 국민 스스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인구조사 전자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인구 조사자들은 주택 방문 조사 시 특별 프로그램이 제공된 태블릿을 사용한다. 인구조사 부문에 있는 다기능 센터 목록의 <내 문서> 국가 및 지방 서비스 항목에서 독자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사할린 통계청이 전했다.

< 세상의 끝>국제영화제, 8월 21일-28일 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코로나19 감염 역학과 관련하여 올해는 축제가 소규모로 개최된다. 외국과 국내 영화제 참가자들의 방문과 일련의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진 관계로 주최 측은 2021년으로 연기해 10주년을 맞이해 전면적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0 세상의 끝> 국제영화제는 팬데믹의 여건 속에 올 8월21-28일에 개최되는데 영화제 기간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영화관 '옥차브리'와 '콤소몰레츠'에서 4개의 프로그램들 속에 매일 2편-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2020 세상의 끝> 영화제 프로그램에는 지난해들의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관객들이 뽑은 우수작 등, 우수 영화들을 포함할 예정이다다.

<세상의 끝. 사건의 지평선>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영화제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진이 선정한 7 - 8편의 새로운 작품들이 상영된다. 작품 경연은 열리지 않지만 전통에 따라 관람객들의 투표가 진행되며 수상작에 관람객의 인기상을 수여한다.

<사할린의 발자취> 프로그램은<세상의 끝>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중 지난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과 사할린 영화제작자들의 올해 신작을 상영한다.

주말마다 오전 상영시간에는 아동들을 새로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화제 전체 프로그램에서 총 30편의 작품들이 선을 보이는데 예년과는 규모가 2배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문화 프로그램은 최소한으로 진행한다. 현 시점에서 주최 측은 한 개의 야외 공연과 특별 초대손님과

예술적 만남 하나를 모색하고 있다.

영화제 총감독인 알렉세이 아그라노위츠는 "<세상의 끝>영화제는 사할린 관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사할린 주민들은 진짜로 축제를 자신들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가 전체적으로 <세상의 끝. 동쪽> 축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할린만의 특성>을 가진 세부적인 행사와, 활동의 조합이 영화 축제에서 펼쳐진다. 이런 점에서 올해는 기념일이 되고, 특별함이 있고, 시간 내내 최고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예년과 같이 이를 시도하지만 관객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영화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상의 끝> 영화제 조직위원회의 모든 준비 작업은 사할린주 문화부, <영화오락조직>국영컴파니, 축제 조직팀의 고정 멤버, 사할린주의 주민들의 협력으로 원격으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축제 총감독인 알렉세이 아그라노위츠와 프로그램 총괄자인 알렉세이 메드웨체브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하여 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청소년 창작 활동교실의 수업을 보장하는 감독 그룹이 구성된다.

17세 이하의 청소년 영화제작자들이 참가하는 <빛의 게임>사할린 청소년국제영화제는 올해 취소된다. 이유는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올해 연말까지 아동을 위한 대중적 행사들은 취소한다는 방침을 따르는 데 있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맥주 영어

군대에서 제대한 뒤 복학할 때까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공부했다. 몽둥이가 날아다니던 남자 중고등학교 영어시간과 달리 이십대부터 오십대까지, 남녀가 함께 웃으며 배우는 영어는 재미있고 쑥쑥 몸에 배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맥주집이었다. 맥주를 마시면 용기가 나고 상대에게 집중하게 된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혀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외국 친구들을 사귀기에도 맥주집이 최고였다.

졸업 때까지 외국 친구들과 맥주 마시고, 여행 가고, 운동 하다 보니 첫 직장이 영어학원이 되었다. 그 때만 해도 영어가 조금 되나 싶었는데 두 번째 직장을 겪어보니 내 영어는 그저 맥주 영어일 뿐이었다.

한 번은 영어가 전혀 안 되는 한국 엔지니어와 외국 엔지니어의 대화를 통역해야 했는데 국문과 출신인 나로서는 복잡한 전자회로의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다. 제대로 통역했다고 생각했지만 둘 사이는 미묘하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참다못한 한국엔지니어가 사전을 찾아가며 토막단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언어가 다름 뿐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던 두 사람은 놀랍게도 문제를 더듬더듬 풀어 나갔다. 중요한 건 내용이고 언어는 그 다음 문제였던 것이다.

한국인의 길안내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일본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열심히 일본어로 말하는 걸 보고 다시 느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공부하도록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니까 영어를 쓸 기회가 없어졌다. 그렇게 십여 년 가까이 되자 우리나라에 오랜만에 온 외국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예전에는 이렇게 앉았잖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원래도 그리 훌륭하지 않았고 쓰지 않으니 알던 것도 잊고 굳어 버렸다. 무엇보다 술을 끊어서 더 이상 맥주영어를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국친구는 안타까워했지만 자기는 술을 안 마셔도 영어 사용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굳이 덧붙이자면 무알콜 맥주는 맥주영어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의 코로나19감염 상황, 100일간 1000명 넘어

7월 6일 사할린 및 쿠릴 지역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이 순차적으로 증가해 단위를 넘어선 가운데 지역에서 총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기록되어 7월 6일에 사할린의 확진자 수는 총1026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감염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에 의한 사망자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상당한 검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지역은 총확진자 수에 따라 다른 행정 지역들 중 끝에서 10순위 내를 유지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간략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3월 18일 -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서 감염 대비 격상 정책 실시.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고 서비스 업종들 휴업에 돌입.

3월 26일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휴무 주간 발표.

3월 27일 - 사할린주 입도 통제 조치 실시. 입도자들 격리 시설로 이송.

3월 28일 - 사할린주에 첫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4명 발생.

4월 1일 - 코로나 바이러스 19 총확진자 5명.

4월 29일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령으로 5월 12일까지 휴무일 연장.

5월 1일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총 24명.

5월 4일 - 사할린에 도착한 사람들 대상 코로나19 의무 검진 시행.

5월5일 -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5월9일 - 전승절 간략히 축하.

5월 12일 -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 통제 해제 시작.

5월 15일 - 쿠릴지역 첫 확진자 발생. 유즈노쿠릴스크에 비상조치 돌입.

5월29일 - 사할린에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100명 이상으로 증가.

6월 1일 - 사할린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132명, 58명이 퇴원, 74명 치료 진행.

6월 13일 - 사할린주 가장 먼저 반코로나19 통제 체제 3단계로 완화 추진.

6월 24일 - 연기됐던 전승절 열병식 진행.

6월 29일 - 대규모 대중 행사 금지 해제.

7월1일 -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844명, 380명 퇴원, 464명 치료 진행.

7월 2일 - 사할린 입도객에 대한 의무격리 지침 해제.

7월 6일 - 사할린 및 쿠릴 열도 코로나19 확진자 총1000명을 넘어섬.

러시아 가족, 사랑, 신뢰의 날 맞아 가정에 대한 통계

매년 7월 8일은 러시아에서 가족, 사랑과 신뢰의 날로 기념하는 환희의 명절이다.

가족 없이는 삶에 지지대가 없다는 점에서 가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기념일은 러시아에서 더욱 대중화되고 있으며 달력에도 표기되어 있다.

이날에 성 베드로와 페브로니의 수호를 바라는 많은 예비부부들이 결혼 날짜를 잡거나 혼인을 치른다.

사할린 통계국은 이날을 맞아 통계 정보를 발표했다.

2019년 사할린주에서 주민 1000명당 7.4건으로 혼인이 성사돼 총 3607건이 성사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51건(1.4%)이 감소했다.

혼인가인 25세- 29세 연령의 남성 24%, 여성 23%가 혼인을 했다.

전 연령대의 사람들의 견해로는 가정의 경제 상태와 든든한 가정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지난해 혼인 결합에서 60세 이상의 남성 150, 여

성 109명이 등록했다.

모든 사람이 혼인관계를 지켜내지는 못한다. 가정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 모두가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이혼 건수는 2018년 대비 3.8% 증가했다. (2019년 지역 내 이혼 건수는 2832건). 사할린에 주민 1000명 당 5.8 건의 이혼이 기록되었고 결혼은 혼인 1000건에 785건의 이혼이 발생했다(2018년에는 1000건의 혼인에 746 건 이혼).

지난해 사할린주에 출생아는 5802명으로 남아 2994명(51.6%), 여아가 2808명(48.4%)이었다.

대부분의 출생아(67%)는 정식 혼인 가정에서 탄생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우글레고르스크는 출산율에 있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5월 상반기 사할린주에 혼인 1053건, 출생아는 2171명이며 이 중 남아가 1116명, 여아가 1055명이었다.

(사할린주통계국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наш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оэт-песенник Тэхо Чан отметил 70-летний юбилей. Мы побеседовали с поэтом о том, как живет сегодня, что печалит и радует.

Книга Судьбы ещё вся не прочитана...

— **Уважаемый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ем Вас с прошедшим юбилеем.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 Вы живет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Чем дышите, чему радуетесь, о чем грустите.**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благодарю за поздравлен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70 лет — ступень, на которой, прежде, чем дальше подниматься, желательнее окинуть взглядом все вокруг себя, охватить взором те ступеньки, что остались позади тебя.

... как живу 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Живу, как и все сахалинцы, в режиме самоизоляции — это по форме! А по содержанию — все обыденно и буднично. Должен особенно подчеркнуть: я человек повседневного труда. Привык изо дня в день, из года в год просто работать и получать от этого человеческую радость. Не могу похвастаться заграничными поездками, путешествиями, что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полноценным отдыхом. Да, были различные поездки за рубеж, но по работе или связанные с «ремонт» здоровья. Поэтическое же Творчество — это просто увлечение! И, конечно, оно занимает сопутствующую нишу в моей Жизни. Слава Богу, что оно есть!

... чем дышу?

Стараюсь дышать полной грудью. Дышу утренним Рассветом, обычным суетным днём и, неизменно, вечерним закатом. А глубокой ночью, когда Южный уже спит:

Выйду из ванны, открою окно

Ночь мне прохладой тело остудит,

А терпкое, мудрое чьё-то вино

Градусом прошлое тихо разбудит...

... чему радуюсь?

Радуюсь, что мои Пацаны растут! Старший, Денис — уже зрелый мужик. Младший, Минхо — только открывает для себя Жизнь во всех ее проявлениях. Могу с ними поделиться чем-то из своего жизненного Багажа... в этом Великая Радость!

... о чем грущ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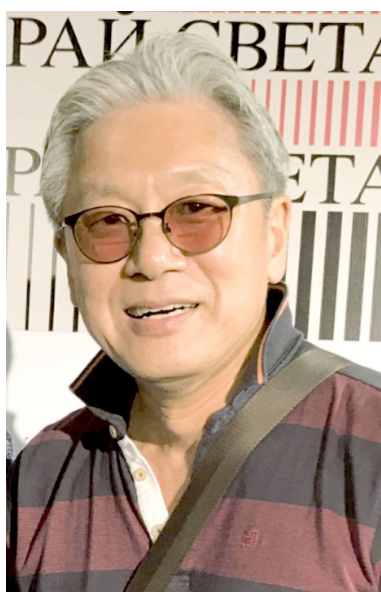
Грусти, как таковой, не испытываю. Думаю, ещё не настало время для Грусти. Но есть непреодолимая Тоска по Родителям!!! Особенно сейчас, когда ты для своих детей Родитель, я тоскую по своим Мама и Папе... В этом, точно уверен, невидимая жизнеутверждающая нить, связывающая Поколения.

— **Ка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Ваш взгляд, значимые, вышли из-под вашего пера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Что есть из очень «свеженького»?**

Ещё раз подчеркну, что я самодеятельный автор песенных текстов, поэтому они все для меня значимы, ибо через них я познал,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ебя, сахалинцев, в конце концов Жизнь!

Жизнь струится по такому сценарию, что все меньше появляются особенные промежуточные Времени, когда приходит хорошая творческая мысл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это труд, который поглощает все и вся. В полсилы не получается им заниматься. И, тем не менее, из «последних» творческих находок хочется выделить песню «Сестричка», написанную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композитором С. Вербицким.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75 — летний юбилей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совпал с написанием музыки к этой Песне. Более года Вербицкий подбирался к мелодии и накануне Юбилея песня зазвучала! А предыстория этой песни интересна: лет десять назад, накануне Дня Победы, я случайно увидел телевизионный очерк о Женщине — участниц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на прошла всю Войну фронтовой медсестрой. Маленькая, хрупкая, вся в орденах и медалях, очень «обыденно» повествовала, как она на своих плечах выносила с поля боя раненных бойцов. За всю войну она вынесла более сотни Солдат. Ее нехитрый рассказ запал в мою подкорку. И вот, перед 75-летним Юбилеем, в считанные часы был написан текст «Сестрички». У меня особ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Великому празднику Дню Победы.

День Победы — больше, чем праздник. День Победы, по мо-



ему глубочайшему убеждению —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код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Исчезнет Код и наступят мрачные времена манкуртов...

— **Хотя Вы являетесь именитым автором многих песен о Сахалине, для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В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человек, написавший песню «Далекая, но близкая Корея». Эта песня стала своего рода гимном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ова судьба песни? Знаю, у Вас была мечта, чтобы эта песня была исполнен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Чтобы особенно следить за Судьбой Песни, не замечал такого за собой. Думаю, она жив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жизнью. И если есть в ней частичка Боли, пережитой нашими Родителями, то я могу не волноваться за ее судьбу. Потомки услышат! Хотел бы я ее услыш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умаю, да!

— **Наверное, одна из самых актуальных тем,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обсуждается в корейском сообществе — это тема возможности репатриации,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Попросту говоря, их дет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Ваших родителей уже нет в живых. Хотели бы Вы поехать жить в Корею?**

Вопрос остро стоящий. Я сам

Тэхо Чан о себе:

Родился в Углегорске в 1950 году, детство и юность прошли в Долинске. Начальные школьные знания получил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а завершал учёбу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е № 1 г. Долинска. Мои родители — выходц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 с детства прививали мне основные черты характера: стремление к знаниям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се начинания. Поэтому в 1967 году, успешно окончив школу, выбираю Новосибирск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начала поступаю в НИСИ (Новосибирский инженерно-строительный институт), но в 1968 году уже перевожусь в НЭТИ (Новосибирский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который окончил в 1972 году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АСУ. Далее работ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служба в армии. В 1976 году возвращаюсь в НЭТИ, на кафедру АСУ,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себя на научной ниве. Результат наступает в 1983 году, когда будет защищен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ё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Затем переезд в 1985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абота в ЮСГПИ. С 1990 по 1992 г. был депутат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совета. В 1992 году ухожу в свободное плавание и становлюс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м.

За сухим перечислением: учёба, работа и опять работа, остались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невозможно изложить в краткой форме, но и обойти стороной нельзя, ибо в них коренятся истоки моего малень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орейская школа приобщила меня 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и рисованию. Навыки подоб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одолжали развиваться уже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институте,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Особенно «нелегко» было в институте: помимо учёбы, приходилось разрываться между КВНом, стенгазетой и институтским джаз-оркестром (играл на ударных). С окончанием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и завершилась и активная фаз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чалось научное творчество, но затем и оно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завершилось. Остался лишь вектор желаний что-то творить для себя. Так я и вышел на написание песенных текстов.

Как-то в 2000 году услышал по местному радио финальные песни первого областного песенного конкурса «Песня Сахалину» и был немало обескуражен «скромностью» колорита песен о Сахалине. Сразу вспомнились мне далёкие долиньские зимы, и уже ко второму конкурсу «Песня Сахалину», в 2001 году, была написана мной первая песня о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ая зима» (муз. А. Красновой). Это дата моего дебюта в качестве автора текстов к песням о Сахалине и не только. Мне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поработать за это время с местными композиторами: А. Красновой, В. Золотухиным, В. Киндиновым, А. Дорошенко, С. Вербицким. Очень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как аранжировщик мне оказывает бывший сахалинец (хотя бывших сахалинцев не бывает) М. Чугунов.

(Сайт СахалинАрт)

в начале нулевых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с Виктором Михайловичем (Ким Бок Кон) в рам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за решение вопросов о репатриации на ПМЖ в Корею лиц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 выплате сбережений потомкам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чьи банковские вклады находятся до сих пор в японских банках. В ту пору решение этих вопросов упиралось в многие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неразрешим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Минуту двадцать. Надо отдать должное и сказать искренне «Спасибо» тем подвижникам, кто терпением и невероятными усилиями сделали то, что не смогли сделать мы. Поэтому ответ лежит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мо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имеют полную свободу в выборе своего жизненного пути. Путь в Завтра. Что касается меня, то я ещё не решил для себя окончательно. Уж больно основательно про-

росли мои кор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Но зов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Родины моих Родителей, с годами все сильнее ночами не даёт спать.

— **Возвращаясь к теме родителей, помню, у Вас был замысел создания серии эссе-воспоминаний о прошлом, о родителях.**

Сознаюсь правдиво: очень медленно движется. Повседневные дела не дают переключиться на это Творчество. Написание текстов к песне не требует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еключения, перехода на другие «рельсы». Но формат эссе от меня требует долгого погружения в «тему»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оэтому пока все в планах.

— **Что является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для Вас сегодня?**

Как и прежде — познание Себя! Времени все меньше, а о себе так мало знаю. Книга Судьбы ещё вся не прочитана...

Виктория Б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
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
mail.ru, skr@sakhalin.ru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ИД КНДР: Пхеньян не нуждается в переговорах с Вашингтоном

У КНДР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идеть за одним столом с США, считающими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диалог лишь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вое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ве Сон Хи,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м 4 июл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Никакие факторы, в том числе, внутренняя политика другой страны, не приводят к изменениям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Пхеньяна. У КНДР ес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набор мер для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долгосрочные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США», —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без указания деталей.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в преддверии визита в Сеул заместителя госсекретаря,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Стивена Бигэна. Ранее он высказал мнение, что очеред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вряд ли состоится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СШ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ступило к исполнению третье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5 ию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ступило к исполнению третье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сумму 35 трлн вон (29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COVID-19. 3 июл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Это произошло через месяц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поступил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депута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более 75% будет исполнено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трёх месяцев, до начала октября, поскольку время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исполнено около 90% первого и почти 100% втор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Компания SK Telecom начала отключение услуги связи 2G

Компания SK Telecom, крупнейший в РК оператор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приступ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к отключению услуги связ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2G, которая предоставлялась абонентам в течение 25 лет.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будут отключены базовые станции в восьми провинция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городе Сэчжон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и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тится 27 июля.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конце ма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около 860 тыс. пользователей 2G,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2%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абонентов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У SK Telecom было около 380 тыс.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рекращение услуги 2G вызвало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ебольшой группы польз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отказываются менять номера телефонов. Группа из 633 человек подала иск в Высший суд Сеула, который его отклонил. Между тем, компания KT, второй по величине оператор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прекрат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2G ещё в 2011 год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обещает наказывать нарушителей каранти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дёт штрафы и предпримет другие юридически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физических 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которые нарушают правила карантин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выступая в воскресенье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по проблемам COVID-19. Если выявится отсутствие маски в учреждениях, где соблюдение правил карантина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нарушители будут подвергаться штрафу, отмет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тановит юридическую процедур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ой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 возмещение убытков, если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небрежность со стороны инфицированного привела к массовом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екции.

Клип BLACKPINK установил пять мировых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на новую песню популя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ансамбля BLACKPINK «How You Like That» попал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в пяти категориях. Об этом 2 июля объявило агентство YG Entertainment.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видео, опубликованное 26 июня, за первые сутки собрало 86,3 миллионов просмотров, установив три мировых рекорда: «видео с наи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с наи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и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исполнителей k-поп с наи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Помимо этого, ролик побил два рекорда по количеству онлайн зрителей в момент премьеры на платформе YouTube (1 млн 660 тыс. человек) среди видеороликов и музыкальных клипов на YouTube. На сайте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ансамбль BLACKPINK представлен как лидер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дписчиков на мировой музыкальной платформе Spotify среди гёрлз-групп, а также лидер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дписчиков на YouTube среди музыкальных групп.

(RKI)

«Мы строим наше счастье...»: Новая книга островного краеведения

В самом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Воронеже была издана новая книг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строим наше счастье.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фоторепортажах Г.П. Соколова».

Составители книги Марина Гридяева, Ким Чан Ок, Наталья Кроча представили издание по визуальной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ередине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Книга с фоторепортажами работавшего в газете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1915–1994) состоит из двадцати разделов, объединённых общими темами: новостями обла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фотоисториями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с акцентом на остров Тюлений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масштабными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фактами. Систематизируя имеющийся в наличии фотограф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и его газетные публикации, составители попытались сохранить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принцип, который легко прочитывается по подписям фотографий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Альбом с работами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 это записанная в фотографиях истор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с середины 1940-х и до конца 1960-х годов. Периоды командировок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сохранились в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и групповых портретах разных людей — участ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событий, как-то: встреча экипажа потерпевшей аварию самоходной баржи, дрейфовавшей в Тихом океане полтора месяца или приезд летчика-космонавта Павла Поповича;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аэропорта или ввод телевизионной станции «Орбита».

Жизнь фоторепортера по-своему примечательная: Григорий Соколов родился за два года до революции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зже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оказа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До войны работал на Кавказе и в Казахстане, участвовал в боя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Через биографию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книги «Мы строим наше счастье...» просматриваются не менее интересные, чем содержание всего издания, эпизоды.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й статье Людмилы Степанец упоминается о том, что Григорий Соколов в середине 1958 года уходит в отпуск без содержан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фотоальбома, который станет «подарком для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цзян».

Герои фотографий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 это люди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солдаты, механизаторы, строители, рыбаки, садоводы, доярки, шахтеры, нефтяники, водолазы, матросы, пограничники, воспитатели,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о герои фоторепортера — это ещё и люд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е только русские, но и корейцы, нивхи, выходцы из республик СССР.

Ненавязчиво в фотографиях Г. П. Соколова прошлое соединяется с настоящим, самобытное — с массовым, чужое, иное — с привычным, родным. Например, своеобразные японские постройки никогда не затмевают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авто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ых кварталов советского времени, но незамет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т историческое прошлое и примечательные детали культуры соседней с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ь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страны.

По законам жанра часть фотоснимков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опубликована как иллюстрация к текстам журналистов, однако многие газетные снимки прочтываются как совершен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истории со своими необычными сюжетами. Так, например, на



Фото из фондов ГИА СО.

фотографии, сделанной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можно увидеть двух совсем ещё молодых женщин: одна — славянка, другая — восточных кровей. Свиноводы, широко улыбаясь, держат в руках молодой приплод. И здесь же, совсем рядом выся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сопки как напоминание о том, в каком регионе страны трудятся женщины. Или в другом случае фотокамера запечатлела горняков в комнате отдыха: кто-то настраивает телевизор, а другие в этот момент находятся в радостном ожидании того, когда на экране появится изображение и звук.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репродукции картины Василия Перова «Охотники на привале». Общее дело отдыхающих горняков, вероятно, по замыслу фоторепортера,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бытовая сценка, волею случая связанная и с охотничьим анекдотом рус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Герои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 это всегда увлечённые своим делом люди, фотокамера застигает их не только в моменты слаженной, дружной работы, но и в периоды отдыха,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Примечательны и другие детали фотографий Григория Соколова: это ушедшие в прошлое молоковозы и объёмные бидоны для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рукописные плакаты с призывами о перевыполнении плана; рисовые от руки киноафиши; механические вес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одержание фотоальбома составителями выстроено в таком векторе,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считать издан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м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широкую аудиторию) и вместе с этим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научным (так как издание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приложениями, перечнем фотодокументов, указателем и списком сокращени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на включение материалов книги в обиход историков, культурологов и филологов.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обновили работу ярмарк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ярмарочные площадки.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рмарки всегда пользовались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нятно, что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нам пришлось приостановить их работу. И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вернуть такой формат торговли, обеспечив санитар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купателей. Это не только всегда свежая и полезная продукция от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о и доступные цен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ярмарок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пределено 75 площадок. В 11 районах действуют стационар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м сезоне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ют активно вовлекать в ярмароч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малые формы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включая КФ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ооперативы, ЛПХ, садоводов и огородников.

Ярмарки, как и социальные магазины, а также собственные точки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мобильные, являются объектами торговли эконо-формата. С начала года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за счет минимальной наценки сэкономили в таких точках почти полтора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За январь-июнь этого года товарооборот сети эконо-формата составил 10,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это почти четверть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ознично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 Относительно аналогичного период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даж в сети эконоформата вырос на 12,1 процента. Мы отчетливо видим, чт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почитают именно такие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Их число у нас расте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и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звитие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региона Инна Павленк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островах работает 126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из них 33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еще 5. Торговая наценка в таких точках варьируется от 5 до 15 процентов. С 2016 года хозяйствующим субъектам данного формата торговли оказыв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 муницип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Кроме того,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магазины 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нуждающимся гражданам. В 2020 году более 14 тысяч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13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с начала года открыли 15 новых собственны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Их общее число приблизилось к 400. Еще 101 объект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мобильные автолавки,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направляют в район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местны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возмещают затр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выездной торговли.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учиться в лучших вузах страны без выезда на материк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ва диплома» заключено 7 июля во время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ария Ганченкова, врио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Андрей Медведе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ициатором создания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д молодыми жителя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ст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тудент, поступая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может без выезда на материк обучаться в высокорейтинговом вузе — партнере проекта -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торого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ли обучения по программа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Выпускники, кроме диплома СахГУ, получают второй диплом о присво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в рамках получ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и стандартами.

—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 участии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ются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реди них —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ластера. Очень важно обеспечить их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кадрам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воспитыва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оставить молодеж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мечты об учебе в лучших вузах страны по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вестись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есурсы и экономика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биология и биоинформатика;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опасных природных зонах; системы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территорий и городов и их цифровые двойники; технологии промышленно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фтегазовый инжиниринг и математическое моделирование; управление водными биоресурс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Фокус АТР; экологический туризм: от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до управлен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экономика. Страны АТР.

— По закону втор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латное, — отметила Мария Ганченкова. — Но участникам программы не потребу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Расходы возьмет на себ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ыпускник программы должен будет отработать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регионе. Конкретный срок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ен.

Сегодня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и идет процесс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й с 14 российскими вузами, среди них: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Том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транспорта, РГУ нефти и газа им. И.М. Губкина, Московски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здоровья им. П.Ф. Лесгафт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тектурно-строите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 РГПУ им. Герцена, МГТУ им. Н.Э. Баумана, Сиб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Томский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 Проект «Два диплома» рассчитан на десятилетия, — сказал Андрей Медведев. — Он позитивно скажется на судьбах участников и экономике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Уверен, выпускники лучших вузов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я первокласс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е найдут перспективную работу в круп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мпаниях, в том числе и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Это будет прекрасный старт для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А экономика области получит новый стимул к росту.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2020 году СахГУ примет для обучения по проекту «Два диплома» около 350 человек.

Почти 2 тысячи свалок ликвидир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аботы по борьбе с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ми точками сброса мусора. Результаты обсуд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удобные и прозрач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утилизации отходов. Мы над этим плотно работаем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А чисто вокруг должно быть уже сейчас. Поэтому параллельно боремся с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ми свалками —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островах от мусора удалось освободить около 2 тысяч таких мес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лностью с поставленной задачей справились в половин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месте с тем, пополнился и общий список мест незаконного сброса мусора. В этой связи еще предстоит ликвидировать более 400 свалок.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Охинском, Анивском, Холм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ах. Ответственным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ам в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направят предписания на уборку мусор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 выпишут штрафы за неисполнение этой работы в срок.

Вместе с тем,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ись с заключением договоров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на вывоз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Документы оформили около 5900 субъектов бизнеса.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с садовым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ми товариществами. Половина из 348 СН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области, оформила договоры с регоператором. С остальными их заключат, как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овариществ появятся контейнерные площадки. Эту работу осталось выполнить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 графику продолжается и установка евроконтейнеров у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2020 году на придомовых площадках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ют установить 1148 контейнеров.

Кроме того,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выполнили задачу по заключению договоров на вывоз строительного мусора. Документы оформили 960 субъектов. В большинстве — это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заняты в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монта и демонтажа.

Как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регионе завершается работа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базы в сфере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Сегодня подписан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орядке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нос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принят документ о порядке обращ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ными шинами.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имен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натор Григорий Карас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членов верхней палаты росси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за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Дн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Ранее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мероприятию д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феда 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ейся презентац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оддержке развития ряда важнейших направлений. Сегодня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еализацию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опросам повыше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азвити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ведена работа по включению в перечень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 сообщил первый за-

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 науке, образованию и культур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т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игорий Карасин.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транспортн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с материком. Выбран маршрут прохождения трассы, сформирован перечень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проработаны вопросы подключения к инженерным коммуникациям.

Кроме того, подготовлена необходим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боты по которой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к 2024 году.

Ведется также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уществующие ограничен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не позволя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тенциал прибрежной зоны в полной мер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 уже подготовила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арламентариям направлено предложение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Ф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в области рыболовства и сохранения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и аквакультуры, — сказал сенатор.

Отчет по реализ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период осенней сессии 2020 год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УФА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ом Силичевым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блюдения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Кроме того, речь шла об исполнен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касающегося направл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по развитию конкуренции.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службы, замечаний к тому, как в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ются нацпроект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нет. Все задачи выполняются согласно федеральному плану и перечню поручений.

— Реализац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является приоритетной для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Это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жизнь каждого сахалинца и курильчанин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ы строим новое жилье, дороги, школы,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качественно поднимаем уровень медицины и боремся за экологическую чистот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обсуждалас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альнейше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регионе приоритета соблюдения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законов о закупках.

Кроме того, по словам Максима Силичева,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должно стать снижение до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астия на конкурентных рынках.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обходимо уменьшать количество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нитар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До 2025 года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ликвидированы или реорганизованы в иную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правовую форму. При этом невозможность ликвидации МУПов необходим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обосновать.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лжны быть отражены в дорожной карт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бщественники могут в номинации «Память поколений». Докумен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5 сентября 2020 года.

От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ждут фото-,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статьи и публикации в СМИ, а также описа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еденных в честь 75-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принимаются в бумажном или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в формате pdf.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департаменте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2, офис 327. Контактные лица: Ржевская Юл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84242-67-03-24, y.rzhevskaya@sakhalin.gov.ru), Маркина Ирина Юрьевна (84242-67-03-23 i.markina@sakhalin.gov.ru) и Ульянова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84242-67-02-97, e.ulyanova@sakhalin.gov.ru).

Напомним,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ризван выявить и поддержать достиж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конкурсе определяют победителей в 28 номинациях. Выберут народ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и педагогов года, самых успеш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активных волонтеров, щедрых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и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 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ей, лучшего главу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человека года.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уют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предприятия крупного, среднего 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Итоги подведут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4 ноябр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 춘천교육대학교와 MOU 체결

-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교육 활성화
-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재외동포 수록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춘천교육대학교(총장 이환기)와 7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식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김봉섭 전문위원, 춘천교육대학교 이환기 총장, 박미대 대외협력처장, 추병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관련 내용의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영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위한 『재외동포 이해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수학습법 공동 연구, ▲재외동포 관련 교육 자료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 등 재외동포 이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대한민국 독립, 6·25 전쟁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엄청난 기여가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5,200만 내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족적 에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발간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주요 인물을 수록하기 시작했으며 재외동포 이해 제고를 위한 부처 협업형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 "세계 속의 한인"과 중학교 인정 교과서 "동행해요! 세계 속의 한인"을 연 내에 발간, 집필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SNS 공모전

- 주 최 :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 행사내용 : SNS에 한국문화, 역사, 한-러 관계 등을 소개한 우수 콘텐츠 공모대회
- 접수부문 : 이미지(카드형 스토리)/동영상
- 참여대상 : 러시아 국민(한인동포 포함)
- 공모주제
 - 1) 나만 아는 한국
예시) 명소, 맛집, 놀이, 문화 등 대상에 관계없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본인만의 특별한 한국이야기 콘텐츠
 - 2) 한-러 문화 비교
예시) 대중문화(가요, 영화, 드라마, 미용 등), 의식주, 관혼상제, 자녀교육 방식 등 대상에 관계없이 한국과 러시아의 특성을 비교하는 콘텐츠
 - 3) 한-러 협력
예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자료 또는 아이디어 콘텐츠

○ 시상내역

구분	시상	비고
1등	상장 및 500달러 상당 상품	이미지/영상 부문별 각1명
2등	상장 및 350달러 상당 상품	
3등	상장 및 200달러 상당 상품	
장려상	상장 및 50달러 상당 상품	이미지/영상 부문별 각2명

* 선정작은 11월 중 별도 통보 예정

○ 신청방법

1. 이미지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분량제한 없음)
2. 해시태그 추가 #대한민국_러시아_30주년 #Korea_Россия_30лет #Korea_Russia_30years
3. 신청서와 콘텐츠의 링크를 10월 30일 까지 사할린출장소(sakhalin@mofa.go.kr)로 제출

○ 참고사항

- '좋아요'나 조회수 많을 시 가산점 부여
- 1인당 출품 가능 수 제한 없음
- 콘텐츠 언어는 러시아어 또는 한국어(별도의 가산점 없음)
- 문의사항 : +7 (4242) 46-24-30

연수2동 주민자치회, '사할린동포회관 등 수건 2천여장' 전달 장롱속 잠자는 수건깨우기 사업 일환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회(회장·고영철)는 지난 2일 지역주민들에게서 기부받은 수건 2천여 장을 사할린 동포회관, 명심원, 동심원 등 복지시설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는 다른 자생단체들과 함께 '장롱 속 잠자는 수건 깨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한 주민은 "내가 쓰지 않고 있던 수건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전달돼 제 쓰임을 다했으면 한다"며 "작은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얻어간다"고 말했다.

고영철 연수2동 주민자치회장은 "작은 생각이 모두가 함께하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들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코로나19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인천신문]



[사진 제공=연수2동 주민자치회]

КОНКУРС ФОТО И ВИДЕО КОНТЕНТА

в честь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 ✳ **ОРГАНИЗАТОР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Владивостоке
- ✳ **СОДЕРЖАНИЕ КОНКУРСА :**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контент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пр.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 **ФОРМА УЧАСТИЯ :** Пост / Видео-пост
- ✳ **УСЛОВИЯ УЧАСТИЯ :** Граждане РФ

✳ КОНКУРСНЫЕ ТЕМЫ :

1) Корея, которую знаю только я

Пример: Рассказ о Корее из личного опыта, не известный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популярном ресторане, игре, культуре и пр.

2) Сравнение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Пример: Сравнение особенностей РК и РФ в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е (поп-музыка, кинематограф, сериалы, индустрия красоты и пр.), укладе быта (одежда, жилье, пища), обрядах (достижение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свадьба, похороны, поминки),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и т.д.

3)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имер: Мнение, либо идеи относительно областей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или взаимного влияния, который получен/может быть получен

✳ ПРИЗЫ:

Номинация	Приз	Примечание
1 место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500	по 1 чел.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для постов / видео-постов
2 место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350	
3 место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200	
Поощрительный приз	приз на сумму более \$ 50	по 2 чел.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для постов / видео-постов

✳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КИ:

1. Опубликуйте в своих соц.сетях пост/видео-пост(объем не ограничен)
2. Поставьте следующие хештеги : #대한민국_러시아_30주년 #Korea_Россия_30лет #Korea_Russia_30year
3. Заполните анкету-заявку и отправьте ссылку до 30.10.2020г. на sakhalin@mofa.go.kr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 +7-4242-46-24-30)

✳ ПРИМЕЧАНИЕ

- ✓ При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полученных лайков или просмотров будут начисля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 ✓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работ не ограничено.
- ✓ Язык контента – русский или корейск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Маркировк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еспечит россиян качественными, эффективными и безопасным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Это значит, что фальсификату не удастся проникнуть на легальный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й рынок, а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лекарств, не отвечающих требованиям новых правил, их выведут из оборота. Кроме того, новая мера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е только на потребителях, но и на поставщиках. Маркировка обеспечит прозрачность поставок и разовьет справедливую конкуренцию на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м рынке. Перемещение лекарств, закупаемых для граждан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ет строг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ся. Также маркировка позволит мониторить предельные розничные цены на жизненно важные препараты.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Чистый знак» любой россиянин сможет проверить лекарства на подлинность и направить жалобу в случае выявленных нарушений. Сканирование кода на упаковке даст информацию о названии препарата, производителе, сроке годности, статусе кода и так далее.

사할린의 기업인들, 과학적 연구기획을 위한 자금 획득 경쟁

사할린주는 연방 <과학기술 분야의 소규모 기업 개발 협력>연방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에서 <스타트(출발)>장려금 경쟁 경연이 열리는데 경연에서 우승한 사업가들은 자기의 기획 개발에 5백만 루블리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스타트> 경연 조직이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경연은 지난해 사할린에서 진행됐던 <움니>경연과 비슷하며 상금은 이때보다 50만 루블리 더 많다.

이번 경연에서 사업가들에게 다음 영역을 제안한다. - 디지털 기술, 의약품 및 보건 공학, 새로운 소재 및 화학 기술공정, 지능형 생산 기술과 새로운 장치, 생명공학과 자원절약 에너지 등.

새로운 경연에서 후보 공천은 그대로 유지되며 주관점을 과학적 연구 및 숙련 설계 작업에 두고 전문가들은 지역을 위한 기획의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7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연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ие бизнесмены смогут побороться за деньги н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проект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ключила соглашение с федеральным «Фондом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малых форм предприятий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е». В рамках эт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состоится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Старт», в котором бизнесмен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развитие своих проек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к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рта». Он будет похож на конкурс «Умник»,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 там гранты были меньше — д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Тогда бизнесмены предлагали свои проекты в категориях: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медицина и технологии здоровьесбережения,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и химиче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новые приборы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и ресурсосберегающая энергетика. В новом конкурсе номинации останутся прежними. Однако акцент сместится н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 опы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е работы. Также эксперты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оектов для региона.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июля. С подробностям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Объяв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общает, что 15 июля с 11-00 до 17-00 часов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будут вести прием врачи-офтальмологи.

1. Проверка остроты зрения;
 2. Проверка межцентрового расстояния;
 3. Проверка оптики 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4. Проверка глазного давления;
 5. Подбор коррекционных очков для зрения по льготам (принести свои очки).
-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осмотр (от 50-ти лет и старше) просим записаться по тел. (4242) 42-40-87 с10-00 до 17-00 часов.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사할린주한인협회는 7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안과 의사의 검진이 진행된다고 공지한다. 사전 진료 신청 요함.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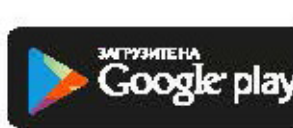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